

코오롱, 바이오-원료의약 통합

원료의약 티슈진 아시아에 양도 · 통합 ... 시너지효과 기대

코오롱그룹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바이오와 원료의약부문 사업을 통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코오롱과 코오롱유화는 원료의약부문 사업을 바이오 전문 계열사인 티슈진 아시아에 양도해 통합하기로 했다고 12월22일 공시했다.

양도대상은 코오롱의 화학사업 부문 중 원료의약과 항균제품 등과 코오롱유화의 의약품 중간체 등 정밀화학사업으로 양도금액은 코오롱이 95억5700만원, 코오롱유화가 20억4300만원이다.

코오롱과 코오롱유화의 원료의약 부문은 2005년 각각 350억원과 15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티슈진 아시아는 현재 타가 치료세포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관절염 치료제인 <티슈진-C>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그룹에 분산돼 있던 바이오와 원료의약 부문을 통합해 연구개발(R&D)과 영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오롱과 코오롱유화가 축적해온 원료의약 부문의 R&D 성과와 노하우 및 인력을 흡수해 기존 바이오 부문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 관련 개발전문회사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12/23>